

지역교육운동과 탈(脫) 가부장적 지역성의 가능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김 정 희**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심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가져오는 위기적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지역성 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두 번째 관심은 지역 활동이 압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지역성 창출의 과정과 결과, 행위 주체는 과연 탈 가부장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관심에서 본 연구는 지역교육운동에서의 탈 가부장적 지역성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지역운동 중에서 지역교육운동은 주체의 생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지역성의 창출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우선 2장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의 지역교육운동을 낳은 사회적 배경을 교육운동, 지역운동, 지역여성운동의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3장에서는 각 지역교육운동을 지역성 생성의 관점에서 1)제 자리 걸음 하고 있는 유형과 2)대안적 지역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대안적 지역성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교육운동에서는 지역교육운동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적 생활양식을 창조해 가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탈 가부장적 지역성의 가능성을 지역교육운동의 여성주의성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찾아보았고, 지역성의 탈 가부장적 발전 가능성과 관련해 해결해가야 할 과제로 자원 활동의 부활성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시민 노동으로의 발전 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지역교육운동, 지역성, 주민자치, 생명여성주의, 탈 가부장적 지역성

* 이 논문은 2001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KRF-2001-005-C20016).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1. 연구 배경과 연구 주제

우리 사회에서 새마을 운동과 같은 관주도적 지역운동이 아니라, 시민 사회나 주민자치를 지향하는 지역활동가들에 의한 지역 운동이 모습을 드러내고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것은 80년 대 말 90년 대 초이다. 우리 사회는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기점으로 중앙 정부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초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었다. 시민운동계의 일부에서는 이러한 중앙 정부의 민주화와 더불어 민주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내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내리는 지역 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갔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각 단체들은 지부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지역운동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태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십 수 년 동안 발전해온 지역여성운동은 교육, 환경문제, 지방자치제에의 주민참여, 지역의 소외계층 자녀와 노인을 돌보는 주민자치적 복지, 생산자를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기 위한 생활협동조합 운동 등 다양한 생활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운동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망국병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사교육의 성행과 많은 청소년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 교육과 사교육 어느 쪽에서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교육적 필요를 지역 차원에서 충족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획일적인 학교 교육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체험교육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해주거나, 방과 후 저소득 계층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며 학교운영에도 참여하며 최근에는 90년대 만들어진 전원형 대안학교와는 달리, 지역 대안학교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교육운동을 ‘생명여성주의자가 이해하는 지역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

‘생명여성주의자가 이해하는 지역성의 관점’은 첫째로 현재 지구화 시대의 인류와 각 국가,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의 하나를 지역성의 창조와 혁신, 유지에서 찾는 논의들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반(反) 지구화론자들이나 생태주의자,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위기를 국가, 계급, 성별, 지역 사이에 양극화가 유례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 가부장적 신자본주의적 지구화로 인식하기도 하고(이메뉴얼 윌러스틴 1999; Mies, M. and Vandana Shiva 1993; Sassen, 1998) 지상에서의 생명의 존속을 위협할 생태학적 불균형 현상과 이에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회관계의 내부 파열과 소아적인 퇴행 등으로도 인식된다(Félix Guattari 1989). 위기에 대한 이러한 기술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의 창조와 혁신, 유지를 대안의 하나로 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대안 논의에서 뚜렷한 하나의 경향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첫째로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지구, 지역은 없고 따라서 지구화는 지역성을 결합한 양태로, 지구화(globalization)라기보다는 지구지역화(glocalization)로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Cvetkovich & D. Kellner 1997; Robertson 1995). 이와 같은 지구지역화로서의 지구화의 전개 양상은 반(反) 지구화론자, 생태주의자, 생태여성주의자들로 하여금 가부장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에 대한 저항의 소재와 근거를 지역에서 찾게 한다(윌러스틴 1999: 86-87; Dirlik 1996; Appadurai; Mies and Vandana Shiva 1993; 헬레나 노르베리-호지/ISEC 2000; 이영자 1998). 이때 지역은 논자들에 따라 중동권 대 미국, EU권이나 동북아권과 같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몇 국가를 포괄하는 블럭적 지역 개념에서 한 국가내의 다양한 지방분권이나 주민자

치의 단위가 되는 좀 더 미시적인 지역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연구의 대상인 지역은 기초 자치단체나 그 보다 더 작은 동(洞) 혹은 동 속의 마을 수준의 미시적 지역이다. 이러한 미시적 지역의 대안적 지역성에 대한 논의는 아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와 울리히 벡(Ulich Beck)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현재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구도 하에서 너무도 해체되기 쉽고 실제 해체되고 있는 지역의 유약성을 충분히 인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양극적인 지구화 구도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역설적 전망을 말한다. 아파두라이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서 문화 재생산은 인종과 계급, 성별과 권력 문제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기술될 수 있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성의 생산이라고 본다. 그에 의하면 통사적으로 볼 때, 지역성은 특정한 이웃들 속에 있는 지역 주체(local subjects)의 실천에서 언제나 생기(生起)한다. 따라서 지역성은 와해되기 쉽고 형성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은 모순을 겪거나 새로운 이웃이 구성됨으로써 없어져 버리거나 이동으로 불안정해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산된다(Appadurai 1998: 197-99).

한편 벡은 '지구적으로는 통합되면서 지방적으로는 그 통합이 해체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노동사회의 주술권에서 벗어나 초국가적 시민사회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구체화시키는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가진 정치적 사회로 진입하는 방안으로 '시민노동'을 제안한다. 그가 제안하는 시민 노동은 활동가들에게 지급되는 시민수당이 부분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원수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Beck 1999: 221-29).

이와 같이 아파두라이와 벡은 패권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과정 속에서 근대적 지역은 해체되고 있음을 보지만, 결국 새로운 지역, 지역

성을 만드는 데서 대안을 찾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상대적 약화와 지방자치제/주민자치제의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21세기 국제경쟁력은 각국이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자치력이 높은 지역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렸다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논의가 1990년대 중반부터 출현하고 있다(정수복 1994; 크리스찬아카데미 1995).

가타리(Guattari 1989)에 의하면, 지구화가 가져온 피해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특이성의 존중과 주체성 생산의 항상적인 작업에 집중된 혁신적인 실천의 촉진과 대안적인 경험의 축적이 사회의 나머지에 적절하게 접합되면서 전적으로 자율화(자동적 실현)됨으로써 실현’되는 새로운 집단적 존재양식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성을 가타리의 이같은, 혁신적 실천과 대안적 경험이 일정 범위의 사회 영역에서 사회화된 새로운 집단적 존재양식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한편, ‘생명여성주의자가 이해하는 지역성의 관점’의 두 번째는 지역성 창조의 과정과 결과가 탈 가부장적인가를 질문함을 의미한다. 생명여성주의¹⁾는 보통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로 불리우는 것으로 가부장제와 현 문명의 생태 위기가 엘리트/민중(또는 다중), 남성/여성, 일세계/삼세계, 백인/유색인, 문명/자연, 인간/자연을 위계적·배타적으로 이분법화 하는 가부장적인 이분법적 세계관에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생명여성주의자로서 지역성에 대한 관심은 지역적 실천이 탈 가부장적이며 생태적인 집단적 존재양식과 주체를 생성하느냐에 있게 된다. 생태주의 대안에서 남성 중심성을 내포하는 근대

1) 나는 생태여성주의의 세계관을 아시아의 불교나 노장 사상에서 찾고자 하며 생태여성주의의 궁극적 가치가 ‘만물의 생명 살림’이라고 보고, 이러한 서구 생태여성주의와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기표로 ‘생명여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졸고, 1998).

적 인간형과는 다른 새로운 주체는 새로운 집단적 존재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예를 들면 가타리에 의하면 생태 위기 시대의 새로운 문제 설정은 주체의 다양화, 탈 중심화에 따른 분자적 파열선들을 횡단하는 색다른 문제 설정이며 이는 곧 새로운 역사적 맥락에서 인간 실존의 생산이라는 문제 설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태적·페미니즘적·반인종적 차별적인 자각이 주체성 생산 양식을 주요한 변화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앞글: 14-15, 32-33). 특히 본 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인 지역교육운동은 그 활동가의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체성에 대한 탐구는 더욱 더 여성주의적 맥락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지역교육운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는 대안 모색에서 이같이 새로운 양식의 주체성이 지니는 비중의 막중함과 결국 인간, 주체성은 교육을 통해 생산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역성과 새로운 탈 가부장적 여성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의 지역교육운동을 낳은 사회적 배경을 교육운동, 지역운동, 지역여성운동의 셋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각 지역교육운동을 지역성 생성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지역성은 혁신적 교육 실천과 대안적 경험이 새로운 집단적 교육양식이나 이와 연관된 생활양식으로 창출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주체가 과연 탈 가부장적인가를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다. 또한 이 두 가지 측면과 관련해 성과와 해결해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인터넷 자료조사, 심층면접, 참여관찰 등의 연구방법에 의존한다. 심층면접은 <표 1>의 정보 제공자의 일반적 특

성에서 보듯이 총 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자들 대부분은 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1명이 대학원을 졸업했고, 다른 1명은 대학원 재학 중이다. 이 중 몇 사례는 전화면접이나 인터넷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전화면접(사례 2-3, 사례 14-19)의 경우도 20-30분 정도의 심층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층면접에 포함시켰다. 지역 연구 차원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정보는 전문위원으로서 1년에 1, 2회 정도 회의나 워크숍, 총회 등에 수년 동안 참석하면서 수행된 참여관찰과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운영에 참가한(1995. 10.-2001. 2.) 부모로서의 참여관찰에서 얻어진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2002년 3월에서 2004년 2월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운영위원 제도에 대해 참여 관찰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역교육운동은 유아,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 등 지역의 다양한 세대를 포괄하며 각 세대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보육운동, 주민자치를 위한 시민교육운동, 교육 서비스적 활동 등 다양한 사회교육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운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 대상이 된 지역교육운동은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다.

또한 이 연구는 지역교육여성운동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현장을 두루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부스러기 선교회를 위시해 종교계가 운영하는 빈민 지역 공부방이 양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어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영역의 지역교육활동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곳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 대안학교와 홈스쿨도 연구에 포함시키지를 못하였다.

본문에서 지역교육운동에 대한 서술은 문헌이나 인터넷사이트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정보들에 기초한 것

<표 1> 정보 제공자자의 일반적 특성²⁾

사례	나이	직책과 주요 활동	면접일
1	38	풀잎새(공동)방과후공부방 이사장	2004. 4. 2.
2	.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	2004. 4. 2.
3	38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부회장	2003. 6. 2.
4	41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남지부장	2002. 6. 12.
5	46	고양 여성민우회 대표.	2000. 5. 24.
6	37	'큰물 공부방'(인천) 대표	2000. 4. 27.
7	34	'함께 크는 우리'(풀잎이 육아) 대표	2000. 6. 14.
8	37	부천시 괴안동 도공 아파트 전 부녀회장	2000. 8. 4.
9	45	'녹색 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서울 수유리) 회장	2000. 8. 9.
10	.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2000. 8. 11.
11	29	'노원 나눔의 집'(서울 상계동)가정결연 실장	2000. 8. 22.
12	37	동북여성민우회(서울 방학동) 공동대표	2000. 8. 22.
13	41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대표	2000.10. 23, 11. 28.
14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부장	2003.12. 9, 2000. 11. 1.
15	.	열린사회시민연합 간사	2000. 10. 24.
16	.	열린사회북부시민회 사무국장	2000. 10. 24.
17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2000. 10. 31.
18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부 교육부장	2000. 11. 1.
19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북강북지부장	2000. 11. 2.

인데, 서술마다 일일이 사례번호를 달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2. 지역교육운동의 배경과 주체

지역교육운동은 크게는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라는 큰 물결 속에서 형성되었지만 운동 주체의 성격에 따라 그 배경은 교

2) 나이는 인터뷰 시점의 만 나이이다.

육운동과 지역운동, 지역여성운동의 셋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교육운동 배경의 지역교육운동

교육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역 교육 단체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하 <참교육 학부모회>로 표기, <http://www.hakbumo.or.kr>)와 <어린이도서연구회>(<http://www.childbook.org>),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Cooperative Childcare & Communitarian Education, <http://www.gongdong.or.kr>)이 있다. 또한 대안학교와 홈스쿨이 생겨나고 있으며 단체 형태는 아니지만 소모임 형태의 ‘품앗이 육아와 교육’도 1998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0년 대 후반 한국 사회는 다양한 시민운동이 꿈틀대던 시기였다. 이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87년에는 학교 교육의 부조리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받는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에 대해 고민하는 자연발생적인 학부모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16군데에서 생겨났다. 이 모임들은 ‘참교육 실현’에 초점을 두고 1989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량해직 될 즈음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사들은 바로 이런 교사들이다’라는 입장에서 전교조 교사 퇴출에 대해 곳곳에서 규탄 대회나 모임을 가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산되어 있는 학부모 조직을 단일 조직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교조의 창립 시기와 맞물리면서 1989년 9월 21일 창립을 하게 된다. 2004년 1월 현재 전국에 44개 지부, 수도권에는 9개 지부가 있으며 전체 회원은 1만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각 지부는 606-700여 명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정회원과 수십 명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자료회원이나 후원회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부에 따라 성립 배경은 교육운동만으로 설명될 수 없기도 하다. 예를 들면 성남지부의 모체는 ‘함께 하는 주부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지역의 종교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의 여성 활동가들과 주민인 전업주부들이 모여 만든 지역 여성 모임이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통하여 어린이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하여 연구하며 독서교육 운동을 하는 시민운동 단체이며 그 회원은 99%가 기미혼의 여성들이다. 이 단체는 1979년 5월에 서울 양서협동조합 어린이부에서 교사들 주도로 어린이 책을 연구하는 소모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단체는 발족 이래 오랜 동안 책상 하나 놓고 견디는 시절을 지나 1990년대 초반 급성장을 하였다. 1992-1993년에 전국 곳곳에서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라는 지역 모임이 결성된다.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은 1993년 수도권 위성도시인 인천시 부평구와,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의 노원구에서 시작하였다. 2003년 7월 현재는 전국적으로 110곳의 지역 모임과 3,5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이외에 자료회원 500명과 정회원 1,000명이 더 있어 단체의 전체 회원은 약 4,500명 정도가 된다. 한편 지역 모임들은 광역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에는 47곳에 ‘동화읽는 어른 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어린이독서 교실 등 다양한 지역어린이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http://www.childbook.org>).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은 한국 사회가 1970년 대 이후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급박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보육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출현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까지 농업이 1차 산업인 전근대적 사회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후 서구가 3세기 동안 겪은 근대화를 30-40년이라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겪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젊은 맞벌이 부모

들은 집 가까이에서 공립 어린이집을 찾을 수 없었다. 집 가까이 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라도 보육의 질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겪은 젊은 부모들은 직접 어린이 집을 만드는 길을 선택하였다. 지역마다 10-30가구 정도씩 모인 초기 부모들은 200-350만원씩 출자를 하여 모은 수 천 만원에서 1억 원 가량의 자금을 모았고 그 자금으로 마당이 있는 주택을 임대하였다. 1994년 8월에 서울 신촌 지역 부모들이 만든 ‘우리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2004년 현재는 전국 56개의 어린이집과 23곳의 방과 후 교실과 1개의 대안초등학교³⁾,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5개의 공동육아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들의 조합형 공동육아는 전업주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1998년도부터 품앗이공동육아를 준비하는 모임들이 생겨났다⁴⁾. 이들 부모들은 ‘품앗이 공동체(pumasi.woorizip.com)’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품앗이를 원하는 부모들의 준비 모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곳에는 27곳의 품앗이 모임이 가입해 있으며 25곳이 수도권 지역 모임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수십 개의 품앗이 교육 관련 카페나 기사들이 검색된다. 또한 어린이 도서 연구회 회원들이 회원 집을 돌며 방과 후 방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통계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2) 지역운동과 지역 여성운동 배경의 지역교육운동

지역운동을 배경으로 한 지역교육운동은 주로 지역공부방으로 나타

3) 공동육아 출신 부모들이 만든 대안학교는 세 개이나,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수록되어 있는 대안학교는 부천의 산 어린이학교 한 개이다.

4) 당시 나는 공동육아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이와 같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품앗이 모임들의 상담을 받았고 이들이 준비하는 품앗이 강좌에 대한 지원도 하였다.

나고 있다. 지역 공부방 운동은 1980년대 도시빈민운동 속에서 발생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은 농촌 인구를 도시로 대거 유입시키는 도시화를 수반하였다. 이 과정은 도시, 특히 수도권 지역에 빈민 지역을 형성시켰다. 이 같은 배경에서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도시지역운동이 전개된다. 이같이 성립된 지역운동에 대해 빈민지역운동가이며 목사인 허병섭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운동이다.”라고 정의한다(1990: 117). 지역운동의 뜻을 품고 빈민 지역으로 들어간 젊은 지역 활동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가야 할 것으로 찾아낸 지역 문제들 중에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탁아소가 중요하게 포함되고 있다. 이 탁아소에서 자란 아이들이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에 입학하면서 1980년 대 초 지역 활동가들과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공부방을 만들게 된다(앞글: 119-122). 이같이 생겨난 공부방들은 1989년에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를 결성하였다.

한편, 서울 지역에서 풀뿌리 지역 운동을 표방하는 단체로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있다. 이 단체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등 청년들이 군사독재를 마감하면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전망하면서 만들어졌다. 현재 지부를 이끌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은 1987년 당시 대학생이었다. 그들은 당시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공정선거감시인단 활동 등 민주화 운동을 하였다. 지금은 서울에 10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지역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교육운동의 마지막 예로 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공부방 운동의 예를 들 수 있다. 성남의 창조학교는 사회참여의 경향이 강한 ‘주민교회’에서 시작된 ‘주민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부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소모임 활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주부들이 독립적으

로 운영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공부방은 조합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재정적, 인적 지원을 받고 있다(이경아 2000: 92). 다른 생활협동조합들도 창조학교와 같은 상설 프로그램 형태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육운동의 중요한 배경으로 여성운동을 들 수 있다. 여성운동단체 중에는 가장 먼저 지역 활동을 시작한 것은 한국여성민우회(<http://www.womenlink.or.kr>)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9월 남녀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민우회는 본부 사업을 하는 5개의 센터(가족과 성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여성노동센터,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환경센터)와 12개의 지부(수도권 8곳)를 두고 있다. 지부의 지역 활동은 주로 수 십-수 백 명의 주부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활동은 1980년대 말 각 지부의 생활협동조합 활동으로 시작한다. 민우회는 참여하는 여성운동, 함께 가는 여성운동, 생활 속의 여성운동을 지향하고 있는데, 바로 생활 속의 여성운동 지향이란 면이 민우회가 다른 여성단체보다 일찍 지역 활동을 시작하게 한 배경이 된다. 생활 속의 여성운동으로 민우회는 가정, 직장, 학교, 사회 모든 분야의 의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고 이러한 지향 속에서 지역 위원회 활동이나 소모임 활동으로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지역여성운동에는 서울 강북구 수유리의 <녹색 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처럼 독자적인 지역여성모임도 있다. 이 모임은 '여성 자신의 발전을 통한 살기 좋은 만들기'라는 모임의 목표에서 보듯이 여성운동단체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지역운동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은 노동운동가 출신인 회장이 관심을 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시작되었다. 정회원이 200명이고 자료회원, 일반 회원을 합치면 1,000여 명 정도 된다.

3. 지역교육운동과 지역성

이 장에서는 지역교육운동을 지역성 생성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즉 지역교육운동을 그것의 혁신적 교육 실천과 경험이 새로운 집단적 교육양식으로 창출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결과, 행위자가 탈 가부장적인 변화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교육운동을 검토할 때 지역교육운동은 1) 제 자리 걸음 하고 있는 유형과 2) 대안적 지역성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지역교육운동의 지역성 창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과,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교육활동의 탈 가부장성은 대안적 지역성 창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1) 제 자리 걸음 하고 있는 지역교육운동

학교 개혁에 활동의 초점이 있는 <참교육 학부모회>의 지역 지부들이 벌이고 있는 활동은 일정 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육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운영위원회 참여와 같은 학부모 권리 찾기 운동은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인다. 학부모회의 교육을 받은 부모들 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급식업체나 앨범 업체 선정 등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 초청 토론회와 같은 사업은 학부모와 제도 교육권과의 벽을 허물고 지역교육자치에 기여하는 효과를 지닌다.

학교 개혁을 목표로 하는, 회원이 1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단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학교 교육은 더욱 더 악화되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붕괴』(1999)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교사조차도 학교 붕괴, 교실붕괴를 자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학교 변혁을 유도할만한 혁신적 실천 양식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참교육 학부모회>의 활동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단체가 주력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참여와 같은 실천 의제는 학교를 변화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교육인적 자원부, 교육청 중심의 관료주의 교육 행정 구도 하에서 심의 기능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학교 예산 심의는 총액, 세부 회계 항목과 지침이 교육부에 의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학교 측이 입안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 기능에 불과할 뿐이다.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예산 항목을 없애고 대신 임시직인 보조 교사 인건비를 올려 줌으로써 잦은 보조 교사 퇴직을 막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권한을 운영위원회는 갖지 못한다. 보조 교사에 대한 일당은 교육부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단체는 제도화되면서 사업을 정부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혁신성을 상실하고 효율적인 교육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원제 외 2001).

이 단체가 혁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붕괴의 핵심 원인에 보다 근접한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최근 일선 교사들로부터 전교조와 같은 교육 변혁 단체조차, 교육 변혁의 핵심인 교과과정 정상화 문제를 각 교과교의 소수 교사 소모임

의 몫으로 방치한 채, 교육 변혁의 중심 의제로 설정해 오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교과 정상화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의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현희승 2003; 홍진표 2003; 하병수 2003). 지난 수년 간 교육 개혁의 담론과 활동의 주도권은 오히려 교육부에 있어 왔다. 예를 들면 교육부는 근본적인 교육 변혁과는 사실상 직접 상관이 없는 교사 조기 퇴직제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 평가제 등을 교육 개혁안으로 제시해 왔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는 자체적인 교육 혁신안을 갖고 운동을 하기보다는 정부가 이와 같이 제시한 안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에 끌려온 감이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와 같이 교육부의 피상적인 교육 개혁안에 끌려 다니는 사후적 활동에서 벗어나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나 교과과정 정상화 등과 같이 교육변혁의 혁신적 의제를 스스로 설정해 밀고 나가는 혁신성의 회복이 요청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이 단체의 지부 활동 역시 실하게 지역의 학교를 변화시키는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도서연구회>의 경우, 그것의 풀뿌리 지역 모임인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은 꾸준히 전국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2000년 조사 당시 2,300명 정도이던 회원은 2003년 7월 현재 3,5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새로운 집단적 교육양식을 창출해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단체는 연간 5만부의 『권장도서목록』을 찍고 그 중의 상당부분을 전국의 학교, 도서관에 무료 배포한다. 또한 신문의 연령별, 학령별 도서 소개는 대부분의 경우 이 자료집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사회적 공신력도 확보하였다. 이 자료집 5만부의 제작비는 약 3,000만원 정도이고 발송비 등을 포함하면 5,000만원 가량 든다. 이 재

원은 2000년경까지는 3,000명 정도에 이르는 자료회원들의 구독료에 의해 충당되었다. 현재는 이 책의 공신력이 인정되면서, 출판사 광고를 싣고 제작 비용의 80%정도는 광고비로 상당 부분 충당되나 나머지 비용은 여전히 회비 수입에 의존한다. 한편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신강평가 위원회’ 모임이 진행된다. 위원회 활동을 하는 주부들은 더러는 출판사가 제공하는 책도 있지만, 자기 돈을 내서 관련 책을 사보면서 <권장도서목록>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한다. 이들에게 실비차원의 활동비만을 지급해도, 실제 책의 제작비는 2000년 인터뷰 당시 기준으로 1억원 쯤 이를 거라는 것이 실무자의 견해다.

이 책의 발간 구조를 보면, 시민들의 노동이 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고 회원들의 경비가 공적 재원을 대신하고 있다. 즉 책자 발간과 관련된 회원들의 자원 활동은 백이 언급한, 시민노동의 전형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책자 발간이 진정한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강평가위원회’는 전문적인 공공성을 인정받는 기관으로 발전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자 발간과 관련된 회원들의 활동 경비와 출판 경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단체에서 위원회의 전문적 공공성을 인정받거나 책자 발간을 위해 공적 재원을 확보하고 책자 발간을 공적으로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단체는 NGO 중에서는 프로젝트에 거의 의존하지 않으면서 드물게 재정 자립을 이루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99% 여성인 회원들이 부담하는 사적 경비를 감안하지 않은 재정 자립이라는 점에서 허구적이다. 이와 같이 사업의 공공화를 시도할 만큼, 사업이 내적인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무보수 자원 활동과 회원 경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단체의 모습은 이 단체가 혁신적인 집단적 실천양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이사회와 같은 이

단체의 지도부가 부부의 주부 자원 활동을 당연시하는 가부장적 전체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이러한 한계는 일반 학부모들이 10여년 동안 어린이 독서 운동에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은 20여 명에 불과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전문가 수준으로 성장한 이 사람들도 전문가로 공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성단체들이 주부들을 여성부가 인정하는 성교육 전문가, 상담원 등으로 교육시켜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자신들의 전문 역량을 공공화시켜 내는 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배출한 독서 지도사를 학교의 방과 후 교사나 학교 도서실 도서 지도사 등으로 배출하는 등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회원들을 전문가로 길러낸다는 전망의 부재 속에서 '동화읽는 어른 모임'은 전국적으로 성행하여도 아이의 성장에 따라 부모들이 스쳐 지나가는 코스일 뿐, 이 부모 참여가 새로운 지역 교육의 터전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한편 저소득층 지역의 지역교육운동은 대안교육이라는 혁신적 교육 실천의 분명한 전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부방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제도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아이들의 대안교육, 복지, 인권, 문화 등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도시속에서의 대안학교 활동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큰물 공부방은 지역의 실업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진로 상담과 인간관계 훈련'을 진행한다. 실제로 대안학교를 연구하는 몇몇 전문가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잘 사는 신흥 귀족 계층의 학교가 되어버린 전원형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의 초기 이념

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고 바닥에서 개척해 온 공부방 운동에서 대안 학교의 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방 운동은 이런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니는 정교사들만으로는 운영되지 못하며 대학생 자원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된다. 자원 활동가들은 교체가 잦고 이는 공부방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대안교육의 장으로서의 내실화를 저해한다. 최근 공부방 운동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위기는 국가로부터 비롯된다. 정부는 공부방 합법화를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정책 연구를 맡고 있는 연구소의 방과 후 보육 정책안은 안정적인 보육의 최소 기준으로 아동 1명 당 1.1평의 공간과 기타 급식실, 의무실 등의 공간과 최소한 실무자 2인을 확보한 경우라야 방과 후 보육시설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한다(김인순 2003; 김재인 2003).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간공부방은 정책의 의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다니던 아동들은 인근의 좀 더 안정적인 인가받은 방과 후 보육시설에서 흡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재개발 지역의 아동들을 중심으로 공부방 운동을 해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민간 공부방은 전국에 25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같은 시설 요건을 갖출 능력을 현실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 임대료가 비싼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더욱 더 불가능하다. 민간공부방측은 자신들이 돌보는 아동은 찾아내서 돌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풀뿌리에 닿아 있는 민간공부방이 해체될 경우, 이 아이들은 제도화된 방과 후 보육시설에 흡수되지 못하고 방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민간공부방은 1997년 2월에 방과 후 아동지도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면서 <전국비영리민간공부방 연대>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제도화를 입안하

고 추진해줄 수 있는 정부나 연구소 등의 정책 파트너를 만들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여년의 역사를 지니는 지역공부방운동은 밑바닥에서의 헌신적 활동과 대안교육이라는 혁신적 정체성과 그 실천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적 정책안 앞에서 함몰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지역여성운동은 지금의 학교제도에서는 불가능한 다양한 열린 교육을 어머니 자신이 교사가 되어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화교실, 박물관학교, 환경학교, 도자기 만들기, NIE, 재미있는 수학기공부, 풍물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그들의 교육 활동을 교육운동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을 여성단체의 회원으로 만드는 가장 대중적인 통로 혹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진행되면, 활동가들은 그들이 교육운동을 하는 것인지 지역여성운동을 하는 것인지 당혹해하기도 한다. 현재의 주류 여성운동은 기본적으로 교육운동을 가부장제를 변혁하는 데 필요한 탈 가부장적 인간을 양성해내는 여성운동의 한 전문분야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단체의 교육활동은 전문적인 교육적 전망을 갖지 못하며 회원이 교육활동 속에서 전문적인 교육활동가로 성장할 가능성도 희박하게 된다.

이것은 여성주의 연구에서 교육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니는 의의와 더불어 좀 더 포괄적으로 고민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성학에서 교육관련 연구는 거의 학교 현장에서의 성불평등을 지적하고 학교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김정희 2001: 41-44;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 1999). 여성주의 교육 연구에서 학교 교육의 변혁과 별도로 학교 밖의 교육 변혁의 시도와 여성주의 교육 변혁을 연계시키는 교육 변혁의 시도가 요구되며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기도 하는 탈 가부장적인 교육의 새로운 내용은 전자보다는 후자에서 축적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이 존재하긴 한다(조혜정 2000; 김정희 2001).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여성주의 교육 연구와 운동에서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운동에서는 아예 교육운동이라는 범주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참교육 학부모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이며 각 여성단체들이 지역교육활동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사인 『열린 희망』의 영역별 운동사에는 교육운동이 포함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여성주의가 지역교육운동을 여성운동의 도구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시대 변화를 그만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2) 대안적 지역성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교육운동

(1) 주민자치적 생활양식의 창조

앞에서는 혁신적인 새로운 집단적 교육적 양식을 창출하지 못하고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거나, 심지어 관료주의적 정책안으로 해체 위기에 봉착해있거나 다른 시민운동의 수단으로 머물러 있는 지역교육운동의 현실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역교육운동 중에는 주민자치적인 삶의 양식을 창출해내는 혁신적 효과를 낳고 있는 지역교육운동 또한 관찰된다.

공동육아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방과 후 공부방은 주민에 의한 보육과 교육 자치의 분명한 영역을 개척한 성과를 낳았다. 어린이집은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살아갈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주 1회 일정 시간에 마을 아이들에게 개방하거나 학

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마포지역의 공동육아는 공동육아를 넘어서서 주민자치적 마을 만들기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지역의 우리 어린이집과 나르는 어린이집은 인접한 마을 주민들로 함께 두레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두레 생활협동조합은 마을학교의 재정을 만들기 위해 2000년 말에 만들어졌다. 그 결과 마을학교인 ‘우리마을꿈터(이하 ‘꿈터’)'가 만들어져 운영 중이다. 두 어린이집 아이들은 각각 도토리 방과 후 공부방과 풀잎새 방과 후 공부방을 3, 4학년까지 다니고 그 이후는 ‘꿈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물론 ‘꿈터’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출신이 아닌 마을 어린이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마을학교이다. 꿈터에서는 택견, 표현 미술, 힙합, 공방, 재미있는 수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미있는 수학 프로그램은 퇴근 후 아빠들의 자원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육아에서 출발한 협동적 삶의 양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미산 살리기 운동을 주도하여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그리고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어린이집과 방과 후 공부방의 한계를 벗어나 주민자치적 삶의 양식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2003년에는 아빠들이 ‘카센터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003년 초에는 ‘동네부엌’이 문을 열어 지역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출판사 등과 같이 야근이 잦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외식이 일상화되어 있는 편이었다. 월 7만원만 내면, 유기농 재료로 만든 반찬을 매일 2개씩 해주는 ‘동네부엌’이 생기고 나서는 외식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녀를 돌봐줄 여력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마을 공동체 속에서 잘 성장해주고 식사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고덕동 지역의 재미난 어린이집의 부모들의 지역 활동도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 이 지역 부모들은 지역의 ‘동화 읽는 어른 모임’, 한살림 문화패 ‘천하대장군’ 등에 소속되어 소모임 활동을 하고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의 교사로 활동하기도 한다(공동육아연구원 2000: 10).

한편 공동육아 부모들은 대안학교 또한 만들어내고 있다. 2001년 설립된 부천의 산(山) 어린이 학교를 필두로, 과천, 강동 지역에 대안학교가 만들어져 운영 중이며 마포지역도 대안학교를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지역교육활동 또한 주민자치적인 지역교육활동의 새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단체는 IMF 이후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에서 전문교사를 지원받고 주민 자원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4개의 지부에서 저소득 방임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학교(열린 어린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생태기행 및 답사, 풍물강습과 공연, 청소년 자원봉사단, 지역 청소년 주말학교 ‘단디 학교’, 인형극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 어린이 학교는 시간제 프로그램 형식의 무료 방과 후 공부방이다.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주제별 수업 및 특별활동, 숙제 및 일기쓰기 지도, 급식봉사, 나들이·견학 도우미 등이다(열린사회시민연합 2000: 60-62). 고정 자원 활동가들은 특별수업이나 기능 수업, 급식 준비 지원을 하는데 대학생 자원 활동가와 주부가 각 50%로 구성되어 있다. 북부 열린 학교(강북구 미아2동)의 경우 22명 아이들을 2분의 전담교사, 급식봉사를 하는 어머니 두 명(월~금 점심, 저녁과 간식)과 학습봉사 어머니들이 돌보고 있다. 여기서는 방과 후 아동 지도사 과정을 열고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어머니들을 자원 활동교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아동 대 교사(자원활동가 포함) 비율과 자원 활

동 교사 교육 프로그램 등은 방과 후 교육이 양질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열린 어린이 학교는 이 같은 고정 자원 활동가들 외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보일러·바닥재·페인트 회사기술직 자원봉사자들의 시설, 보수 지원, 이미용 지원, 할머니의 구연동화 지원 등-의 지원을 받아 준비되었고 운영된다(앞글: 72).

열린 학교가 지역성 창조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위해 계층간 벽을 넘는 주민자치적인 협동적 생활양식을 창조했다는 데 있다. 특히 이러한 주민자치 활동이 일시적이 아니라 수 년 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 내실 있는 주민자치적 삶의 양식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단체가 출발 당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운동’을 표방했던 데서 나아가, 현재는 주민자치, 시민교육, 자원봉사는 보다 구체화된 목표를 단체의 3대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서도(www.openc.or.kr) 단체의 지역성 창조를 위한 활동의 내실이 성숙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유리 지역의 ‘녹색 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은 특정한 공동의 지역적 기반 없이 회장의 뜻 하나로 출발하였으나 활동 양상에서는 열린사회시민연합과 비슷한 지역성 창조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모임은 ‘여성 자신의 발전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분명히 표방하면서도 아동·청소년 교육 활동과 더불어 여성 활동, 환경 활동, 노인복지 활동, 주민 문화 활동 등 지역운동을 포괄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 모임의 공부방은 자원활동가가 대학생인 다른 공부방들과는 달리 주부들이며-20여 명의 아이들을 10여명의 주부 자원활동가가 돌본다- 이로 인해 이 공부방은 다른 공부방보다 월등하게 안정되어 있다. 주부 자원활동 교사들은 그

들이 다른 어느 공부방보다도 최고 수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끝으로 지역성 창조의 잠재력을 지닌 실천으로 품앗이육아와 품앗이 방과 후 공부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품앗이는 교육적 성과 면에서는 조합형 공동육아/방과 후 공부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차이는 이 경우 주체가 전업주부 어머니들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조기 지식교육 위주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원 등의 사교육을 마다하고 어머니들이 품앗이로 육아와 교육을 해결해가고 있는 품앗이는 조합형 공동육아의 영향으로 생겨나기 시작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품앗이 공동체(pumasi.woorizip.com)’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품앗이를 원하는 부모들의 준비 모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품앗이 공동체 회원들은 현재 사단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자생적인 필요성에 의해 각 지역에서 생겨난 품앗이 모임들이 품앗이 교육으로의 연대적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품앗이를 확산해갈 전망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품앗이 부모들 중에는 책을 펴내기도 하고 부모 교육의 강사로 나가거나 방과 후 교사로 취직하는 등 자생적으로 전문성을 쌓아가는 면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이러한 주민자치적 시도들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민간의 재정적 열악함에서 비롯된다. 공동육아는 늘 터전이 전세라서 불안함에 시달리고 부모 보육비만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린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출자금 감자를 경험하게 된다. 공부방 운동의 경우도 활동가들의 대안교육전문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재정적 열악함 속에서 뜻하는 교육 전망을 충분히 현실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나 자치단체로부

더 공공성을 인정받으면서 공적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보인다. 공동육아는 정부에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보육 지원 제도를 민간어린이집도 자체 투자액에 비례해 정부가 투자해주는 민간 보육법인을 인정하는 제도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공부방의 경우도, 복지부가 풀뿌리 복지를 담당해 온 일부 지역 NGO들을 복지부 위탁 자활지원센터로 인정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처럼, 풀뿌리 공부방을 정부 위탁 공부방으로 인정받는 방안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탈 가부장적 지역성의 가능성

이상에서 살펴본 새로운 지역교육양식들은 가부장제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고 있는가? 지역교육양식의 창조 과정과 그 결과에서 우리는 탈 가부장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성에게는 새롭게 시도되는 집단적 실천이 탈 가부장적이기도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주민자치적 지역성으로 다가온다. 또한 지역교육운동은 그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충분히 주체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곧 그 운동의 혁신성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지역교육운동의 여성 주체들은 교육운동을 여성운동으로 자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양자의 상관성에 대해 별다른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여성주의는 맞벌이를 주장하는 주의 정도로 이해하고 전업주부들로서의 자신들의 지역교육 활동과 여성주의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운동의 탈 가부장적 특성을 살펴 보려면, 주체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의식 정도나 겉으로 드러난 활동이나 운동에 대한 관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체성과 운동의 내부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여기서 연구자가 파악한 지역성 창출 과정에서의 탈 가부장적 특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첫째로 교육운동에는 생명여성주의자들로서의 여성의 모습이 발견된다. 여기서 생명여성주의는 여성 개인이 자신과 타자, 그리고 사회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명여성주의적 특성은 지역 공부방 운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관계·심리·의식·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연구자의 품앗이공동육아에 대한 연구(2000)와 이경아(2000)의 논문에서 잘 서술되고 있다. 우선 변화는 어머니들이 자기를 살리는 변화로 나타난다. 자기를 살리는 변화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소통이 원활치 않던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충만한 대화를 하는 관계로 변하며 사장되었던 잠재력이 되살아나 모임을 끌어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능력 발휘로 나타난다(김정희 2000: 115-119; 이경아 2000: 35-36, 41-44, 59-60, 75, 89).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의 생명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은 아래에서와 같이 변화의 원동력을 존재 변혁의 문제로 이해하고, 생태적 세계관을 체화하고 있는 데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제가 산에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풀들을 많이 캐보고 씹어도 보고 냄새도 맡고 하는데 하여튼 모든 풀이 다 달라요. 맛이랴든가 생김새라든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안 중요한 풀, 안 중요한 나무가 없다는 걸 요즘에 와서 좀 알았어요. 예전에는 논 같은 데 피었던 잡풀도 농사짓는데 방해가 되니까 뽑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도 다 이름이 있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 없어지면 그 다음 종이 못 자라고 그게 하나의 먹이 사슬처럼 걸려 있어 가지고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하찮은 풀이지만 우리하고도 다 관계가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애들한테도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 그런 거를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삶도 많이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이경아 2000: 71).

둘째로 교육운동은 탈 가부장적인 성장공간을 제공한다. 즉 그것은 양성평등적 인간을 길러 내거나 오갈 데 없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여성운동은 법 제정과 개정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제 한국은 호주제를 제외하고는 법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2002년 UNDP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87개국 중에서 여성권한지수가 61위이다. 이것은 운동이 법 중심 운동에서 탈바꿈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성폭력특별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해자 남성들을 수십 명이나 수 백 명에 한 명 꼴로 감옥에 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으로 폭력친화적인 남성성을 내재한 인간과 폭력적, 공격적 문화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는 곧 여성주의적인 삶의 구체적 양식,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새로운 단계의 운동은 일반인과 운동가, 일상 삶과 운동이 분리된 운동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운동이다. 즉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가는 삶의 방식이 곧 운동이다.

예를 들면, 공동육아 부모들은 여성주의적 의식이 분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며 여성주의 실천의 장으로 공동육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를 믿고 길러줄 수 있는 보육의 장으로 또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 그 부모의 여성주의적 의식성의 유무나 정도와는 상관없이 공동육아는 여성주의적 교육의 경향성을 지닌다. 이것은 평등주의적 교육관, 남아 여아가 함께 공유하는 생활·놀이 중심의 교육, 자연친화적 생활 등에서 기인한다. 공동육아 아이들은 핵가족이나 다른 보육 집단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성이 강하고 성고정관념적 사회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김정희 1997: 236-240; 우남희·구현아 2000). 공동

방과 후와 품앗이 방과 후는 이같은 탈 가부장적 공동육아를 초등학교령기의 아이들에게까지 연장해서 체험케 하는 성 평등 문화 창조의 장이다.

한편, <공부방 연합회> 소속의 공부방 운동은 제도권 교육에서 구조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공간의 절대적 결여 속에서 학교교육에 적용할 수 없는 여건의 청소년들은 성폭력범이 되고 청소년 성매매를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공부방 운동은 공동방과 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성의 상품화 문화를 재생산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는 여성운동이다.

<공부방 연합회> 이전 회장은 지역공부방 운동의 여성주의성을 실무자의 약 80%가 여성이라는 점과 여자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여하고 있거나 미흡한 교육적 감수성과 사명감을 지니고 있는 것들로 설명한다. 이것은 이 공간이 탈 가부장적 교육 공간이 되는 데 핵심적 작용을 한다고 보인다.

셋째로 지역교육운동의 여성주의성은 이 운동이 지역여성운동과 연결되어 있거나 그 자체 지역여성운동의 구심점이기도 하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IMF 당시 공부방은 다른 공부방이나 지역 모임들과 연대해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지킴이 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공부방 자모들을 포함한 지역 어머니들이었고 학력은 국졸에서 고졸인데, 고졸은 드물게 있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로젝트 전반부에서는 의식 개발, 인간관계 훈련, 사회의식 교육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후반기에는 지역 지킴이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킴이들은 지역 가정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가구 별 실제 형편과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확인해내고 이 정보에 따라 물품, 급

식, 도시락 등의 서비스 제공을 연결해주는 일 등을 하였다. 지킴이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 실정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화하였고 IMF시기에 지역 공무원들은 이들의 정보에 의존하여 지원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유해 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을 애정을 갖고 선도하며 건강한 지역문화 만들기 차원에서 업주들을 만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득하고 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 같은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임시직 일용 근로자라는 가장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저학력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런 활동은 주민자치라는 과제를 여성 중심으로 받아내고 있는 생생한 사례이다. 이러한 자치적 실천은 최근에는 실업자들을 위한 자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활 센터는 빈민 여성들에게 간병, 도배, 요리 기술 등을 가르쳐 취업을 알선하거나 출장 뷔페, 반찬 가게 등 소규모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활사업이 어느 정도로 주민자치적 사업으로 내실화해가고 있는가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성의 탈 가부장적 발전 가능성과 관련해 짚어야 할 문제로 자원 활동의 부분성의 문제가 있다. 여성주의의 기획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분의 자원 활동으로 수행되어 온 지역 교육 활동이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쉽게 답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리프킨(Lifkin)이나 백(1999)이 제시하는 제3부문의 시민 노동 개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노동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은 아니나 공적인 보상을 받는다.

한국 사회의 현 교육 상황은 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 2004년에는 1,024개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시범 실시되며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아직까지 주5일제 직장 근무가 일반

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의 수요가 있는 한, 학교별 또는 지원자에 한해 토요일을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는 지침을 세워 놓고 있다. 그 동안 시범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교육부의 예상과는 달리 일선 학교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시범 사업의 대상이 아니었던 대부분의 학교는 토요일 체험 학습 실시에 대해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지원이 없는 채, 단위 학교 스스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사회교육이나 체험 학습을 해온 지역 단체들, 복지관 등을 찾아다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일은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교육운동이 해온 것은 학교가 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학습이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주부들이 전문성을 갖춘 체험학습 교사로 성장하였다. 이들의 노동에 공적 보상을 해주고 학교와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생긴다면 그것은 학교를 새롭게 하며 시민운동, 여성운동이 제3부문으로 발전할 수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교육운동권은 이제는 전문 역량으로 성숙한 교육활동가들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시민 사회 자체적으로 마포지역의 공동육아 부모들이 벌이고 있는 마을학교 만들기와 같은 활로도 개척될 수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경우는 어릴 때부터 육아를 공유함으로써 이 마을을 떠나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 만큼 육아 공동체로서의 탄탄한 뿌리가 있는 속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간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한 여성 교육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 교육운동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서 토론 사교육과 같이 체험학습 회사를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하나는 가부장적인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가져오는 위기적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지역성 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두 번째 관심은 지역 활동이 압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지역성 창출의 과정과 결과, 행위 주체는 과연 탈 가부장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관심에서 본 연구는 지역교육운동에서의 탈 가부장적 지역성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지역운동 중에서 지역교육운동은 주체의 생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지역성 창출의 한 전제조건은 새로운 주체의 창조이다. 지역교육운동을 지역성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의는 바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대안 모색에서 이 같이 지역성과 새로운 주체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2장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의 지역교육운동을 낳은 사회적 배경을 교육운동, 지역운동, 지역여성운동의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각 지역교육운동을 지역성 생성의 관점에서 1)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유형과 2)대안적 지역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지역교육운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그 원인으로 교육변혁의 의제가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점, 부활의 주부 자원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하고 따라서 회원들을 전문가로 키워내는 교육 시스템과 단체 활동을 공공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 풀뿌리 교육 실천의 의의를 간과하는 국가의 관료주의적 정책안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대안적 지역성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교육운동에 대한 고찰에

서는 지역교육운동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적 생활양식을 창조해 가는 마을 만들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탈 가부장적 지역성의 가능성을 지역교육운동이 내재하고 있으나 평가받아오지 못했던 여성주의성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찾아보았다. 이외에도 지역성의 탈 가부장적 발전 가능성과 관련해 해결해가야 할 과제로 자원 활동의 부불성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자원 활동을 공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시민 노동으로 발전시켜 가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역교육운동에서 종교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괄하지 못했다. 종교계의 지역교육운동은 활동가들의 시민 사회적 지향보다는 종교적 헌신성에 기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종교계의 지역교육운동으로의 공부방은 복지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밑바닥 소외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을 돌보고 있으며, 주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많은 자원활동가들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간과될 수 없는 지역교육운동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공동육아연구원. 2000. 『공동육아 방과 후, 어떻게 하고 있나?』, 공동육아연구원.
- 김민남. 1999. “삶의 소통, 상호침투,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 활동.” 『삶과 교육』 창간호, 도서출판 마을.
- 김민남. 2000. “삶의 현장 조망에 따른 교육관념.” 『삶과 교육』 2호, 도서 출판 마을.
- 김정희. 1997. “공동육아와 생명중심의 육아문화만들기.” 김미혜 외,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미래인력연구센터.
- _____. 1998. “생명여성주의의 존재론적 탐구: 반야불교와 노자의 ‘마음’ 개념에 기초한 신인간형의 모색.”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0.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 공동육아: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16권 1호.
- _____. 2001. “지구화 시대의 교육 변혁론과 여성주의.” 『한국 여성학』 16권 2호, 한국여성 학회.
- 김인순. 2003. “방과후 아동보육 방안.”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 제 15차 여성정책 포럼,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 2003. “방과후 아동보육의 쟁점 및 합리적 제도화 방안.”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 제15차 여성정책 포럼, 한국여성개발원.
- 리프킨. 1996. 『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 민음사.
- 송원재. 2001. “학부모 운동을 진단한다.” 『교육비평』 2001 봄
- 열린사회시민연합. 2000. 『우리들, 아름다운 사람들』(공동체운동 시리즈Ⅲ), 열린사회 시민 연합.
- 이경아. 2000. “모성의 사회적 확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이매뉴얼 윌러스틴. 1999. 『유토피스틱스』, 백영경(옮김), 창비.
- 이영자. 1998. “지방화-여성 주체의 미래사회를 위하여.” 『삶의 정치-통치에서 자치로』, 정문길 외, 대화출판사.
- 전교조 정책연구소 (준)학교 교육 연구실. 1999. 『학교 붕괴』, 푸른 나무.
- 정수복. 1994. 『지방화 시대의 지역여성운동』, 한국사회학회 편.
- 조혜정. 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크리스찬아카데미 편. 1995. 『주민자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 하병수. 2003. “선택형 교과과정과 교사노동구조의 변화.” 『교육비평』 제 14호(겨울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현방안 연구』
- 허병섭. 1990.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하월곡동 빈민지역운동』, 한울.
- 헨리 르페브르. 1990.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세계일보.
- 현희승. 2003. “초등 교실속 7차 풍경-90%를 소외시키는 교육과정.” 『교육비평』 제 14호(겨울호).
- 홍진표. 2003. “지금은 교과모임이 투쟁에 나설 때.” 『교육비평』 제 14호(겨울호).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ISEC 지음. 2000. 『허울뿐인 세계화』, 이민아 옮김, 도서

출판 따님.

- Appadurai, A. 1998. *Modernity at Large—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ck, U. 1999., *Schoe neue Arbeitswelt*,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홍윤기 옮김,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생각의 나무)
- Cvetkovich, A. & Douglas, K. 1997. “Introduction: Thinking Global and Local”, Cvetkovich, Ann & Douglas Kellner ed., *Articulating the Global and the Local*, Boulder: Westview Press.
- Dirlik, A. 1996. “The Global in the Local”, in Rob Wilson, Wimal Dissanayake(eds), *Global/Local: Cultural Production and the transnational Imaginary*, Duke University Press.
- Félix, G. 1989. *Les trois Écologies*, Paris: Éditions Galilée(윤수중 옮김, 『세가지 생태학』, 동문선)
- Mies, M. and Vandana, S. 1993. *Ecofeminism*, London: Zed Books(손덕수이난아 [공]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2000)
- Sassen, S. 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The New Press.
- <http://www.childbook.org/>
- <http://www.civilpower.org/>
- <http://www.gongdong.or.kr/>
- <http://www.openc.or.kr/>
- http://www.womenlink.or.kr

